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 년 9 월 10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개선을 위해 5 백만 달러의 직장 교육과 트레이닝 보조금 프로그램 출시

보조금은 비영리 단체의 직장 안전 개선을 위한 트레이닝과 교육에도 사용 가능

자금은 이주 노동자와 저임금 산업 근로자의 보호에 도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5 백만 달러의 저임금 산업에 대한 근로자 건강과 안전 상태를 개선하는 직장 교육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주지사가 이달 초에 행진한 2016 센트럴 근로자 위원회 근로자의 날 퍼레이드와 일치합니다. 보조금은 비영리 단체에 이주노동자들을 자주 고용하고 부상 위험이 자주 발생하는 산업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지사가 추진하는 새 네일샵 환기 규정 시행과 세탁소 산업에서 광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금지 교육 실행을 포함하여 뉴욕을 건강하고 안전한 기준의 직장을 가진 선두 위치에 놓으려는 기획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네일샵으로부터 밀린 수백만 달러의 임금을 돌려받는 것에서 위험한 작업상태에 대한 단속까지 이번 행정관리는 우리의 근면한 노동자들을 위해 나서는 뉴욕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보조금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 위험에 가장 취약한 뉴욕시민들 보호에 사용될 것이며 모든 뉴욕시민에게 알맞은 더 낮고 안전한 근로 환경에 또 한 걸음 다가서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매년 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직장 부상에 드는 비용이 백억 달러입니다. 그 중 근로자 보상 시스템에서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나 오직 손해 받은 임금과 부상 발생 시 한 번의 진료만 보상받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근 4분의 3의 근로자가 고용주의 보복이 두려워 직장 위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거나 아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는 이런 상황에 취약하며 항상 고립된 작업환경, 언어 장벽 및 이민 신분 부족에 직면하므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주에는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특정 수요를 위한 몇가지 교육 자원에 대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보조금 프로그램은 산업 분야에 존재하는 가장 심각한 근로자 건강과 안전 위험 문제를 해결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대상 업계:

- 건설
- 농업
- 세탁소
- 조경
- 접대

현재 가능한 보조금은 지역 기반 단체, 직접 서비스 제공자, 근로자 건강과 안전 클리닉 및 기타 비영리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은 트레이닝, 교육을 제공하여 근로자, 후원자 및 기업들을 도와 아래의 조치들을 실행하려 합니다:

- 직장 사고, 부상, 질병, 폭력 및 기타 육체적, 정신적인 직장 건강과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 근로자 보호와 직장 안전 개선을 위한 근로자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성공 사례 실천;
- 직장에서 부상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치료와 금전적 보상에 대한 권리(예, 근로자 보상위원회를 통한 청구);
- 근로자 안전과 건강 규정을 지키고 뉴욕 주 노동부의 현장 상담 프로그램에 가장 잘 협력하는 기업.

관심 있는 단체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on.ny.gov/RFA> 에서 알아보십시오.

뉴욕 이민 연맹(New York Immigration Coalition, NYIC)의 상임이사 **Steven Choi**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착취 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나서서 뉴욕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많은 근면한 이민자들에게 그들이 도둑 맞힌 수백만 달러의 임금을 돌려주신 선두자입니다. 뉴욕 이민 연맹은 이 획기적인 기획에 박수를 보내며 파트너 및 NYIC 회원들과 함께 직장 안전과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뉴욕의 모든 근로자 즉 이민자와 본토 태생의 근로자가 평등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뉴욕 근로자 안전과 건강 위원회 상임이사 **Charlene Obernau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지사님의 위험한 작업환경에 처한 근로자들의 입장을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자금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향상을 위한 단체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근로자가 어둠 속에서 벗어나 그들이 누려야 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코넬대학교의 ILR 학과 근로 고용법(Labor and Employment Law) 프로그램 책임자 **Esta Bigler**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학대받는 근로자들이 어둠 속에서 나와 경제적 주류에 합류하도록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 기획은 우리 경제의 변두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에 다가가는 중요한 걸음입니다.”

노동착취 퇴치

2016년 7월, Cuomo 주지사는 현재 공동 대책위원회인 노동 착취 방지 집행위원회가

2015년 7월부터 1,547 개의 업소에서 7 천 5 백 명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4 백만 달러에 가까운 체불 임금과 손해 배상금에 대해서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세탁소 종업원들에 대한 착취에 관한 여러 기관의 조사와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유해 화학 물질을 금지하는 다양한 노력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http://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employers-repay-nearly-4-million-back-wages-and-damages-more-7500>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